

“군민 눈높이서 보고 들어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

민선9기 취임 100일 김태성 신안군수

농어촌 르네상스 등 5대 핵심분야 성과 극대화 추진 ‘군민과 함께 답을 찾다’ 등 통해 현장소통 강화 노력

“군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정책은 주민소득과 주민복지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태성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수는 민선 9기 취임 10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르네상스 등 5대 핵심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읍·면과 작은 섬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에서 군민과 함께 답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넘어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으로 연결했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타운홀미팅과 작은 섬 주민 간담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현재까지 700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12개 읍·면 현장 방문에서 467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10개 작은 섬 주민 간담회에서도 58건이 수렴됐다. 기존 정례 타운홀미팅에서는 139건, 군민참여 정책토론에서는 44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이 같은 현장행정 강화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농촌 르네상스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5대 핵심분야를 군민 눈높이에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김태성 군수의 군정 주요핵심과제는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상·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 체계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 등 5대 분야이다.

군은 이를 극대화 위기 위해 기존 군청에서 매주 진행하던 정례 타운홀미팅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섬 지역 주민들이 군청까지 찾아와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격주 단위로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군민참여 정책토론회로 전환해 운영하는 한편 군수가 읍·면과 작은 섬은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병행하고 있다.

5대 분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100일째를 맞은 지난 8일에도 김태성 군수는 하의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주

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보고 들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 주민,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민이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을 주제로 군민참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같은 현장 소통은 섬 지역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데도 효율적이다. 군은 주민이 제기한 의견 가운데 상하수도과 버스노선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로와 해상 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주민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피해보상금 공개와 안좌고등학교 통학버스 증편 등이 주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에 반영돼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민선9기 출범 이후 100일간 신안군의 소통행정은 주민이 군정을 찾아오는 행정에서 군수가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읍·면은 물론 작은 섬까지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은 현장과 행정의 거리를 좁혔다는 평가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촌 르네상스 등 5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김태성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수는 최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군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 노력해 모든 정책을 주민소득과 주민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분재대회에서 세계 주요 후보지들과의 경쟁 끝에 ‘2028년 세계분재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청



김태성 신안군수 최근 군민참여 정책토론회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청



김태성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수는 최근 임해읍 송공리의 김 양식장과 김 가공공장을 방문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역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청

올해 폭염·가뭄에도 벼 농사 풍년 결실

김태성 신안군수 수확 체험…농업 현장서 애로 청취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최근 비금면 지당리 일대 벼 베기 수확 현장을 찾아 여름철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온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신안군의회의원, 비금농협 조합장, 지역 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 군수는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수확을 시연한 뒤,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기상 여건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신안군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벼 못

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 처리제, 벼 수용성 규산, 병해충 방제약제 등 필수 영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기후변화와 영농비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풍성한 결실을 거둬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신안 고품질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 현장 중심의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전체 벼 재배면적 8354ha 중 친환경 인증 면적이 3467ha로 전국에서 유기농 면적이 1위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중심지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김태성 신안군수는 최근 비금면 지당리 일대 벼 베기 수확 현장을 찾아 여름철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온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청

민선 9기 공약 사업 실천 ‘군민 검증’ 돌입

공약이행평가단 출범…5대 분야 실천계획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과 육상·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 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 등 5대 분야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군민 검증에 들어갔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위촉된 평가단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약사업 실천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는 평가단 위원 위촉장 수여와 단장 선출을 시작으로, 5대 분야 공약사업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원 계획, 실행 가능성, 주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각 담당 부서별로 전달해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실천계획을 보완·확정해 군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평가단을 통해 공약 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공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태성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가단의 객관적인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군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위촉된 평가단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약사업 실천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청

월 70만원 규모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민선 9기 핵심 공약…“자녀 키울 수 있는 신안 만들터”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신안군은 최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아이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수당은 정부 아동수당(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 개최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분유와 기저귀, 학습도구, 교육비 등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군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줘 타 시·군보다 더 터울 지원 속에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 사회보장 사전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아동양육수당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